
전주푸드플랜2025 추진전략

강 성 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00700ksw@jeonjufood.org

- I. 머리말
- II. 전주푸드플랜의 출발
- III. 전주푸드플랜 추진배경
- IV. 전주시 생산·유통·소비·사회 현황
- V. 전주푸드플랜2025 추진전략 4단계

전주푸드플랜2025 추진전략

I. 머리말

1. 경과 및 방향

- 인간의 삶에서 '먹거리'는 먹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그래서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는 필수재(Necessary Goods)를 말함
- 세계무역기구(WTO)의 공공조달 협정에서도 공공비축, 공공급식영역은 정부의 직접 지원 예외를 허용함. 이는 먹거리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환경과 구조의 문제임을 인정하는 것
- 2015년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대도시 먹거리전략 '전주푸드2025플랜'을 설계하고 지역 먹거리 생산·유통·소비·순환체계 기반 조성을 위해 전주푸드 생활화·체계화 사업을 시작함
- 3년이 지난 2018년, 전주시는 전주푸드플랜 실천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먹거리 정의(Food Justice) 실현 및 농업순환경제 확대'를 위한 이른바 '먹거리 정의' 실현을 위한 세부 정책 실행에 들어감
- '먹거리 정의'란 넓은 의미로는 일반적인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 전반을 의미함
- 미국을 비롯하여 서구 등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의 국가 정책은 먹거리(Food)를 핵심에 놓고 건강, 복지, 환경, 문화, 과학, 기술, 보건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음. 또한 '소득의 양극화'가 '밥상의 양극화'로 전이된다고 보고 이에 따른 영양 및 건강 불균형과 사회 불평등을 '먹거리 정의'라는 하나의 시각으로 문제 해법을 찾고 있음
-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현재 먹거리시스템은 먹거리를 지불 능력이 있는 소수에게만 허용하는 '부정의(Injustice)' 상태'로 보고, 국가나 지방정부의 적극 개입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
- 그렇다면 우리는 왜 먹거리 정의와 먹거리 보편적 복지를 담보하는 먹거리 보장의 정책화 명분과 요구가 분명하고 이것의 구체적 실천이야말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적정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확산과 행정 구현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인가

4 푸드플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 이는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나뉘 볼 수 있는데 우선 내적요인으로 첫째, 먹거리 보장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관점이 '결핍 문제'를 해소하는 것, 또는 '공공급식'을 배운다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음. 매우 낮은 차원의 문제인식 수준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 둘째, 먹거리 문제를 사회적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여기지 않고 단순히 개인문제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강함. 사적 소유와 경쟁 사회임을 기반으로 '각자 알아서 먹고 살자'는 논리를 앞세우는 것임
- 내적요인의 마지막으로 '먹거리'가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공급사슬(Food Supply Chain)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관련된다는 것과 건강,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 국가 전반에 융·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먹거리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먹거리 부정의(Food Injustice)'라는 사회적 역기능의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거나 유발시킨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해마다 일어나는 학교급식 식중독 감염사고 등 국가 전반의 식품안전성 관련 문제는 먹거리 부정의의 대표 사례로 볼 수 있음
-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역에서 재배되어 유통비용이 들지 않아 환경 친화적이고 가격까지 합리적인 지역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순환 체계(local Food System)를 대신해 시장경제 논리가 오롯이 반영된 초국적 기업과 대기업(농식품복합체)이 국내 지역단위의 대다수 식품생산 조달체계를 장악하고 있음
- 외적 요인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범 지구적 독점 식량체계(Global Food System)는 아직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미완의 땅을 찾아내어 초국적 독과점 자본 지배력을 넓혀가기 위해 저가, 저급, 저질 이른바 '나쁜 식품(Junk Food)'에 소비자가 빠져들기 쉬운 경로 만들기에 대규모 자본을 무한정 쏟아 붓고 있는 실정임
-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빈곤층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먹거리의 안전과 영양 수준은 매우 취약함. 특히 공공급식 대상인 결식아동 무료급식이나 경로식당 제공 음식은 대부분 글로벌푸드시스템에 의해 공급되는데 거의가 다 먼 거리 이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신뢰도가 낮은 수입 식재료나 저가 냉동식품,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인 것이 현실임
-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시민이면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실현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 먹거리 생산 주체인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소득과 일자리를 보장함은 물론 전주의 선순환경제를 살려내는 공공성, 지역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먹거리 정의 정책 등 전주시 먹거리 종합전략인 '전주푸드플랜2025'의 실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해가는 것임

2. 구성 및 내용

- 본 자료는 2015년 시작되어 향후 10년간 추진해야 할 전주시 먹거리정책 전주푸드플랜의 구상과 실행 전략을 담고 있음
- I 장에서 전주푸드의 경과 및 방향을 개괄하고, II 장에서 전주푸드와 전주푸드플랜의 개념과 정의, 가치와 지향점을 정리하였고, 비전과 목표, 정책체계를 설정하여 기본구상을 제시함
- III 장의 내용은 전주푸드플랜의 추진배경으로 전주의 현주소와 추진방향, 전주공동체의 저력을 서술함
- IV 장에서는 생산, 유통, 소비, 사회 등 먹거리와 관련된 전주시 현황을 영역별로 진단하고 문제를 종합하여 대응방향을 검토함
- V 장에서는 전주푸드플랜을 현실화는데 필요한 영역별, 단계별 내용 특성 등을 세분하여 제시하고 기대효과로 마무리하였음

II. 전주푸드플랜의 출발

1. 개념 및 정의

1) 전주푸드(Jeonju Food)와 전주푸드플랜(Jeonju Food) 개념 정의

- 전주 먹거리는 지역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지켜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적 문화의 결과물로 '시민이면 누구나 보장받는 안전하고 건강한 전주 먹거리'로 정의
- '안전하고 건강한 전주푸드가 지역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재활용되는 순환체계를 만들어 시민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주 먹거리 종합정책'으로 정의

2. 가치와 지향

□ 첫째,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와 발전

- 지역사회에 기반한 커뮤니티 푸드시스템으로서 전주푸드는 지역생산, 지역소비, 먹거리 접근성을 개선하고 높여나가는 시스템임. 이를 통해 더 큰 지역의 신뢰를 만들어 지역사회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유력한 수단임

6 푸드플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 둘째, 지역환경과 시민건강 증진

- 지역 내의 생산-가공-유통-소비-재활용되는 순환적 종합체계는 지역 환경의 물적 부담을 저감시키는 시스템으로 의의를 가짐. 무엇보다 투명한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의 모든 단계를 만들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지향을 가짐

□ 셋째, 먹거리의 사회적 가치 실현

- 먹거리는 시민 모두가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리로 먹거리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일은 사회적 가치 실천의 필수적인 수단임. 특히 먹거리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임

□ 넷째,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

- 먹거리를 매개로 지역사회의 관련 주체를 잇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곧 지역단위 먹거리 정책임
- 다양한 활동주체간의 이해관계를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해 조정하는 푸드 거버넌스 구축의 과정임

3. 비전과 목표

1) 전주푸드플랜 비전

- 건강한 시민 · 지속가능 농업 · 독립경제도시 전주

2) 전주푸드플랜 목표

- 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 식량권 보장
- 둘째,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생산체계 구축
- 셋째, 지역순환경제 실현의 유통체계 구축
- 넷째, 자연·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체계 강화
- 다섯째, 소외 없고 따뜻한 지역공동체 구축

4. 정책체계 설정

1) 전주푸드플랜 정책영역

- 생산(Farm&Farmers), 유통(to&2), 소비(City&Consumers), 순환(Recycle)구조가 지역 사회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영역
- 전주푸드플랜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실행체계(System-wide) 구축까지 포함
- 생산(생산자)과 소비(소비자)를 다양한 경로(유통)로 연결하여 먹거리 접근성 높이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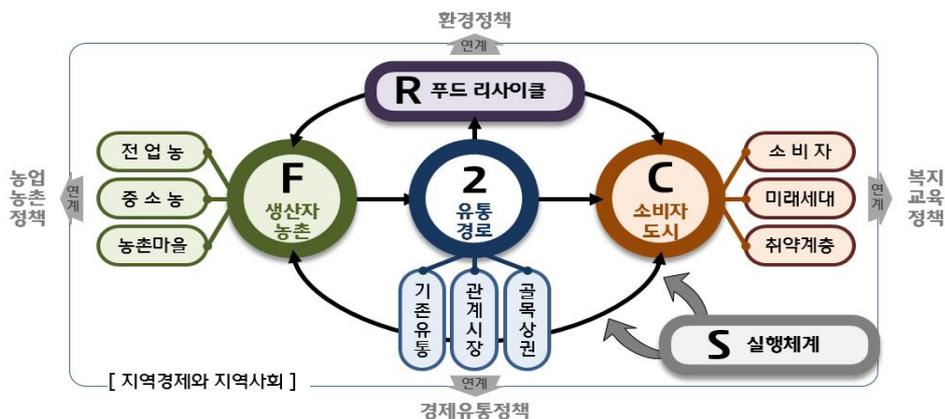
2) 전주푸드플랜 정책대상

- 생산영역 : 전업농, 중소농, 농촌마을을 포함한 전주농업 전체
- 유통영역 : 기존의 산지유통주체와 전주푸드 관계시장을 새로운 거점축으로 기존 골목상권과 연계하는 영역을 포함
- 소비영역 : 일반 도시민 전제와 함께 어린이 등 미래세대, 취약계층 등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소비체계를 포함
- 재활용영역 :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재활용 및 자원화 영역을 포함
- 실행체계 : 생산-유통-소비-재활용 단계의 원활한 작동과 실행을 지원하는 지원체계

3) F2C 정책체계(안)

- F(생산)2(유통)C(소비)를 기본축으로 R(재활용)로 순환구조, S(실행체계)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활성화 도모
- 전주푸드 정책체계로 포괄되지 않는 영역은 환경, 복지, 교육, 경제, 유통, 농업정책 등과 연계하는 구조

그림 1. 전주푸드플랜 정책체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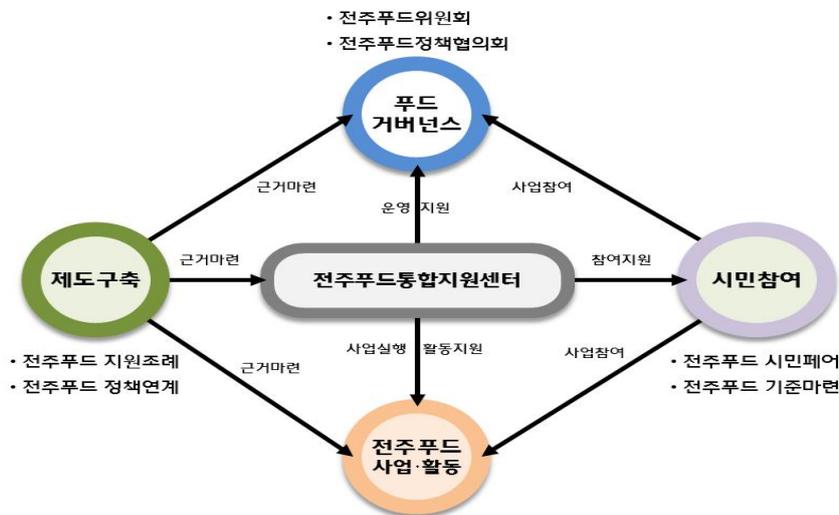


4) 전주푸드 통합 추진체계

(1) 전주푸드 통합 추진체계 전략 (System-wide)

- 전주푸드플랜 실행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전주푸드 단계별(생산·유통·소비·순환) 재 구조화 총괄할 컨트롤 타워 설치
- 제도구축 및 사회적 여건 마련, 전주푸드 거버넌스, 실행지원조직 운영

그림 2. 전주푸드 통합 추진체계 전략



(2) 전주푸드 통합 추진체계 구축

- 시민참여와 이해관계 조정 위해 대의기구(시의회) 통한 합의
- 제도 구축과 정책개선+민·관 거버넌스+실행·지원조직이 핵심

(3) 전주푸드 제도 구축

- 전주푸드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정
- 전주푸드 관련 정책실행 및 시민참여 활동 촉진·지원에 중점

(4) 전주푸드 거버넌스 실행

- 전주푸드정책과 시민활동 총괄·지원하는 '전주푸드위원회'운영
- 전주푸드분야별 정책 조정·지원하는 '전주푸드정책협의회'운영

(5)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 전주푸드 사업·활동, 정책실행 총괄하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전주푸드 기획생산, 관계시장 창출, 통합물류 공급, 소비자 교류 등의 핵심전략을 직접 담당하고 수행
- 전주푸드플랜 정책실행 초기, 추진기반과 동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

그림 3.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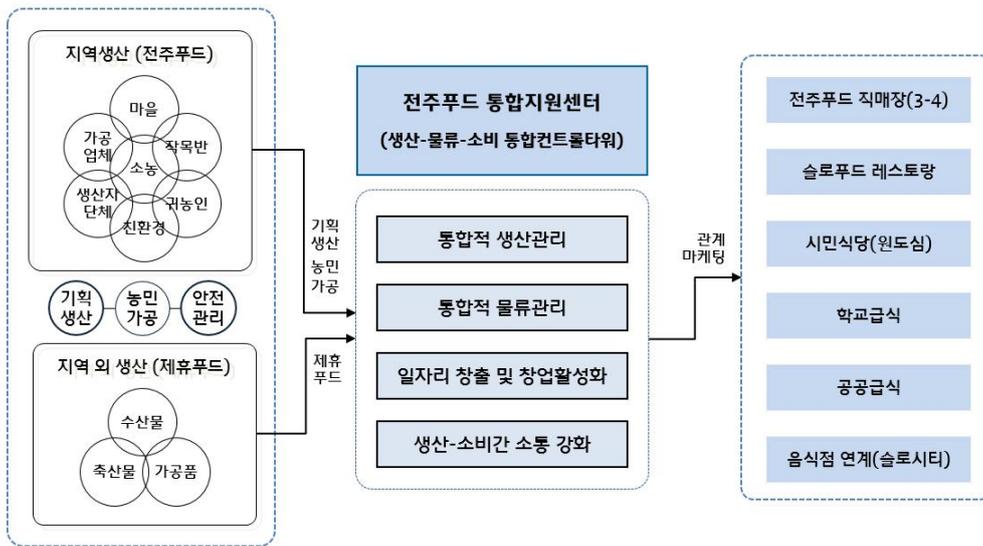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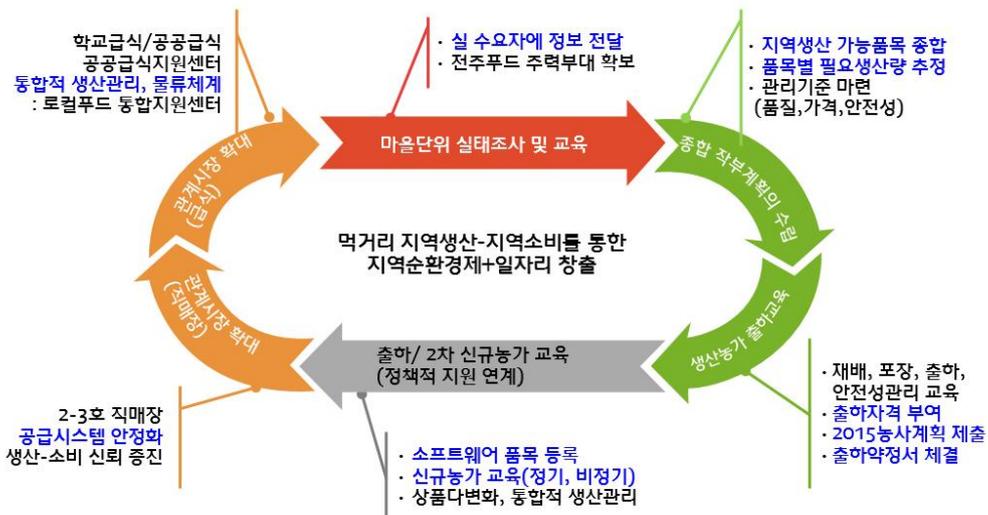


그림 4. 기획생산체계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역할



Ⅲ. 전주푸드플랜 추진배경

1. 전주의 현주소

1) 지역의 위기 : 성장과 발전의 괴리

- 지역경제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생활경제와 지역의 불안정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지역 생산의 부가가치가 매년 21.8% 지역 외로 유출(2012년 호남권)되는 외부의존 경제구조는 단순히 돈의 부족문제가 아님
- 또한 경쟁력 중심의 성장전략이 가져온 일상적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사회적 배제는 모두가 누리는 제도·서비스·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병리현상을 일컬음

2) 지역의 진로 : 성장을 넘어 발전으로

- 생활 상에 필요한 재화·서비스가 지역에서 생산, 교환, 분배, 소비되는 구조가 요청되고 있음
- 지역과 단절되거나 부분적 관계에 그친 구조를 일상적 관계로 복원하여 선순환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전략이 시대적으로 요청됨
- 지역내부의 역량을 중심으로 외부자원과 역량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전략임

2. 추진방향

1) 생활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 추진

- 쇠퇴 지역은 주민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이유로 상품과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아 생활경제가 작동되지 않는 문제 직면함
- 생산-소비의 단절, 필요-공급의 괴리를 시정하는 생활경제 활성화가 전주가 지향해야 할 도시재생 전략임

- 지역사회의 필요와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체계적인 사업과 활동이 요청되고 있음
- 지역이 가진 인적·물적자원을 결합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은 지속적 일자리, 고용확대·안정에 기여하는 유효한 전략임

2) 사회적 관계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 사회에서 보람있는 공동체 활동 등의 사회적 요인이 결정되는 영역임
- 시장에서 거래하는 물질적 요소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요인에 의한 사회적 자본이 중요함
- 생산(자)-소비(자), 도시-농촌, 산업-농업의 단절을 교류·연대로 엮어내는 관계가 중요한 과제임

3. 전주공동체의 저력

1) 도시와 농촌·농업의 공존, 순환자립의 힘

- 현대사회에서 도시재생의 힘과 실행전략은 먹거리·농업을 매개로 실행되고 있음
- 도시-농업·농촌이 공존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순환·자립경제 실천역량이 전주의 힘으로 평가되고 있음
- 농업·농촌은 도시재생, 도시문제 시정을 실천하는 유력한 도시재생 전략으로 주목되는 영역임

2) 슬로시티·음식창의도시, 사회성숙의 힘

- 전주는 역사적으로 가장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맛과 멋, 공동체’를 지켜온 대표 도시로 평가되고 있음
-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하여 전주시 전체가 슬로라이프와 슬로푸드로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국제 슬로시티연맹이 지정한 슬로시티임
- 특히 전주는 맛과 멋의 식문화와 먹거리 전통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 창의도시임
- 세계적으로 지역 먹거리 정책은 지역사회가 더욱 성숙·발전하는 핵심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IV. 전주시 생산·유통·소비·사회 현황

1. 생산현황 및 구축방향

1) 농산물 생산액

- 전주시 농업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규모는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음
- 미곡 236.3억원, 엽채류 169.2억원, 과채류 126.7억원, 과실류 84.5억원, 조미채소 51.0억원, 축산 47.7억원, 두류 38.1억원 등

표 1. 전주시 농업의 생산규모 및 생산액 추정(2012년)

단위 : ha/호, 억 원

구 분	재배면적 / 사육농가		생산액 추정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총 생산	207,647	4,764	43,701.4	806.1
식량부문	151,805	3,319	13,681.7	292.2
미 곡	130,351	2,620	12,606.9	236.3
맥 류	12,178	392	510.9	17.5
잡 곡	1,518	9	17.2	0.4
두 류	7,758	297	546.7	38.1
원예부문	36,611	1,332	10,647.3	466.2
서류(생서)	5,712	15	1,179.6	4.6
과 채 류	3,704	149	2,900.6	126.7
엽 채 류	3,093	269	1,332.6	169.2
근 채 류	2,640	105	928.7	29.9
조미채소	9,119	284	2,510.3	51.0
과 실 류	7,118	486	1,489.4	84.5
특용작물	5,225	24	306.0	0.3
축산부문	19,231	113	19,372.5	47.7
가 축	19,231	113	17,248.3	42.9
축산물			2,124.2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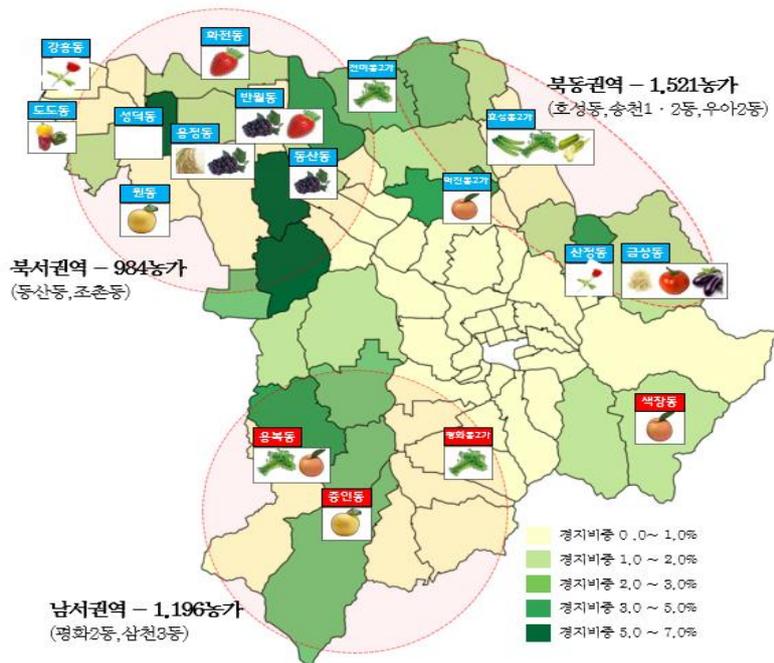
주) 생산액 추정 : (1)시군 통계연보 통계기준, 농축산물재배면적, 생산량, 사육두수 계측 → (2)농산물소득조사, aT산지가격기준 평균단가 추산 → (3) 품목별 평균단가 적용 시군별 총 생산액 추계 → (4)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로 추정된 전북 생산액에 시군 생산액 비중적용

자료 : 통계청, 시군통계연보, 농산물소득조사, 농업면적조사, 농산물생산조사, 가축동향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각년도

2) 농업지역 구분

- 전주시 농업은 북서권역, 북동권역, 남서권역 등 크게 3개 권역으로 구분되고 있음
- 북서권역 : 조촌동, 동산동 등 984농가
- 북동권역 :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우아2동 등 1,521농가
- 남서권역 : 평화2동, 삼천3동 등 1,196농가

그림 5. 전주시 농업의 분포도



3) 작목구조

- 전주시 농업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몇 개 작목 중심으로 단작화됨
- 쌀 57.6%, 밀 9.4%, 통 2.0%, 미나리 3.9%, 배 3.5%, 복숭아 4.9% 등이 전주시 농업의 주요품목을 차지하고 있음

4) 농가인구

- 전주시 농업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지만 전업농은 정체수준인 반면 겸업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임
- 전업농가는 2,627호로 정체수준이지만, 겸업농가는 4,510호로 증가하고 있는데 2종 겸업농가의 비중이 매우 높음

14 푸드플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표 2. 전주시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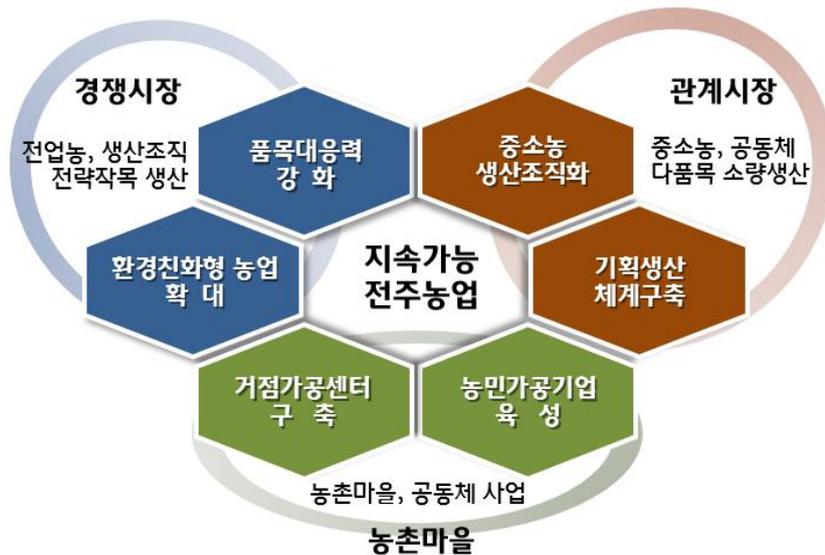
구 분	2000년	2010년	2012년	도내비중
전체인구(명)	620,521	641,525	648,863	34.6
농가인구(명)	18,145	21,167	21,538	8.2
비 중(%)	2.9	3.3	3.3	-
농가호수(호)	5,153	6,806	7,137	6.7
전업농가	2,688	2,487	2,627	4.3
겸업농가	2,465	4,319	4,510	10.2
-1종겸업	1,151	868	708	3.7
-2종겸업	1,314	3,451	3,802	15.2
전업농비중(%)	52.2	36.5	36.8	-

자료 : 통계청, 시군통계연보, 각 년도.

5) 전주푸드 생산체계 구축 중점방향 (Farm & Farmers)

- 건강하고 안전한 전주푸드를 생산·공급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장 세분화 전략에 따른 생산자 조직화가 중점방향
- 전업농과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품목별 대응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형 농업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 (경쟁시장 대응)
- 중소농과 공동체 조직을 중심으로 중소농의 생산조직화와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전략 (관계시장 대응)
- 농촌마을과 공동체 사업조직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생산 거점과 사업조직을 육성해 소비자 밥상의 수요에 대응 (농산가공 확대)

그림 6. 전주푸드 생산체계 구축전략



2. 유통현황 및 체계구축 방향

1) 유통주체 분포

- 전주시의 농축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는 인구이동 경향을 반영하여 구도심에서 신흥 주거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
- 전통시장은 구도심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인구 증가율이 높은 신흥 주거지역에 대형마트, 직매장 등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

그림 7. 전주시 유통판매 거점 분포



2) 유통주체 현황

- 전주시에 농축산물을 직접 유통하는 판매거점은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있음
- 전통시장 5개소, 도매시장 1개소, 로컬푸드 직매장 4개소, 대형마트 7개소, SSM 16개소, 하나로마트 등 5개소 등

3) 시민 구입처

- 전주시민의 음식료품 주 구입처는 수퍼·편의점이 가장 많고, 대형마트·백화점, 전통시장 등의 순으로 조사됨

16 푸드플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 2009년에 비해 전통시장 이용율은 37.0%에서 42.1%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타 구입처는 감소하고 있음

표 3. 전주시민 음식료품 및 생활용품 구입처 현황

구분	전통시장	대형마트·백화점	수퍼·편의점	인터넷·방문판매	기타
2009년	37.0%	58.1%	70.8%	21.8%	1.9%
2013년	42.1%	57.1%	65.3%	19.2%	1.3%

자료 : 전주시통계연보, 사회조사, 각 년도, 복수응답

4) 전통시장 이용현황

- 거주인구의 신흥 주거지역으로의 이동으로 전통시장으로의 시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전통시장별로 그 편차가 커지고 있음
- 전주시내 5개 전통시장 중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중앙시장 등 3개소를 제외하고 서부시장과 동부시장은 그 이용이 미미한 수준
-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전주 시민의 구매물품은 주로 야채와 과일, 육류와 생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야채·과일 84.9%, 육류·생선 68.8%, 유제품 등 6.4% 등 음식료품이 주요 상품으로 구매되고 있음

그림 8. 전통시장별 음식료품·생활용품 구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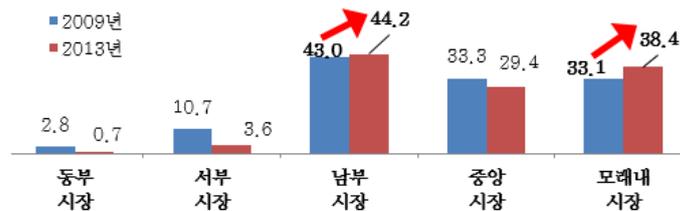


그림 9. 전통시장 구매물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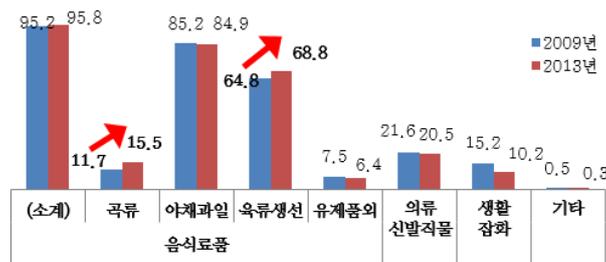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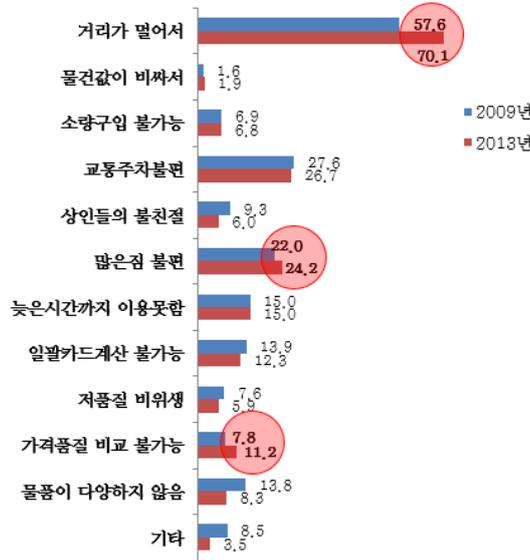


그림 10. 전통시장 상품 미 구매하는 이유



자료 : 전주시통계연보, 사회조사, 각 년도, 복수응답

-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거리 및 소비자 등의 접근성과 짐을 들고 다니기 어려운 여건을 꼽고 있음
-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0.1%, 주차불편이 26.7%, 짐을 들고 다니기 어려움이 24.2% 등으로 조사됨
- 특히 상품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2009년 7.8%에서 2013년 11.2%로 급격히 증가한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5) 유통액 추정

- 전주 농산물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지역농협과 도매시장이 연간 취급하는 규모는 1,952억원 수준으로 파악됨
- 산지유통 주체로 기능하는 전주농협은 214.4억원, 북전주농협은 633.3억원 등 총 847.7억원의 농산물(2012년 기준)을 취급하고 있음
- 소비지유통 주체로서 전주도매시장은 전주원협 605.7억원, 전주청과 498.3억원 등 연간 1,104억원 농산물을 취급(2014년)하고 있음

표 4. 산지 및 소비자유통 주체의 농축산물 취급액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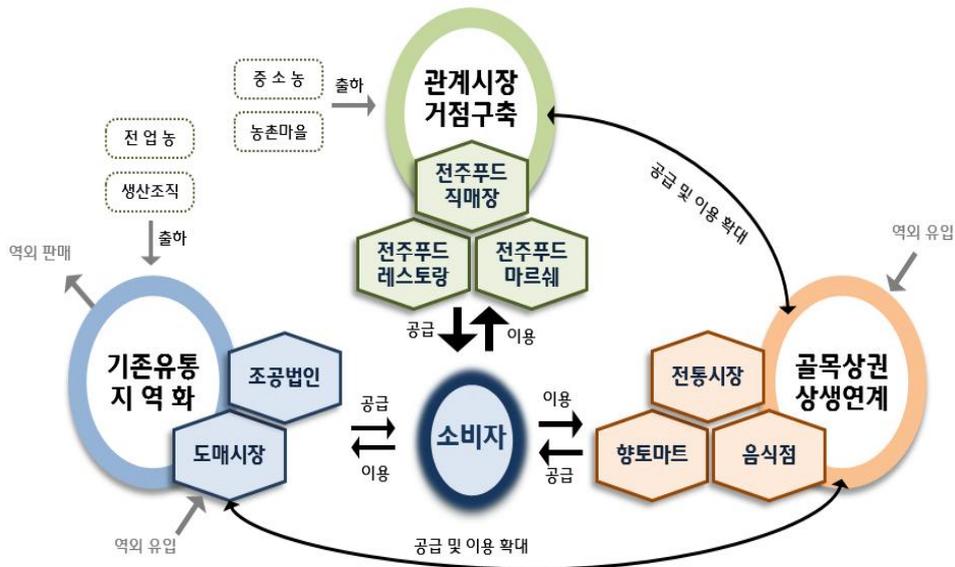
지역농협 (2012년)			도매시장 (2014년)			
소계	북전주농협	전주농협	소계	전주원협	전주청과	수산
847.7	214.4	633.3	1,104	605.7	498.3	102.9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경영계수요람 및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업무자료.

6) 전주푸드 유통체계 구축 중점방향 (To & Distribution)

-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전주푸드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전주푸드 먹거리 접근성 개선 위한 거점 조성이 핵심
- 전주푸드의 새로운 판매 및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전주푸드 관계시장의 거점을 조성하여 먹거리 접근성을 확대 (관계시장)
- 기존 전주농산물의 산지·소비지 유통을 담당했던 유통주체가 전주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기존유통의 지역화 전략 (경쟁시장)
- 지역 골목상권(전통시장, 향토마트, 음식점)과 연계·상생을 통한 지역순환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전주푸드 상생전략

그림 11. 전주푸드 유통체계 전략



3. 소비현황 및 체계구축 방향

1) 소비액 추정

- 전주시민이 가계단위에서 직접 소비하는 농축산물은 연간 9천억원, 농축산가공품은 3천억원으로 추정됨
- 전주시민 가계단위에서 연간 소비 지출하는 규모는 14조 7,999억원이며 이중 식료품 및 음식점 소비지출액은 3조 8,555억원임
- 식료품 및 음식점 소비지출액 중 직접적인 농축산물의 비중은 6.0%이며 농축산가공품은 2.1%로 분석됨
- 전주시민의 가계소비 지출 중 외식소비는 연간 1조 8,403억원 이며, 학교급식 등은 560억원으로 추정됨

표 5. 전주시민 가계지출 소비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2007년	2012년
전주시 소비지출액	132,165	147,999
식료품·음식점 소비지출액	37,305	38,555
농축산물·농산가공품·외식(a)	28,746	30,537
농축산물·농축산가공품 지출액	11,383	12,134
(가계소비) 신선농축산물	9,002	9,072
(가계소비) 농축산가공식품	2,381	3,061
음식점 외식 지출액	17,363	18,403
(외식소비) 음식점	17,333	18,374
소비지출 내 a 비중	21.7	20.6
(가계소비) 신선농축산물	6.7	6.0
(가계소비) 농축산가공식품	1.8	2.1
(외식소비) 음식점	13.2	12.5

주 1. 가계소비, 외식소비에 15세 미만 인구 제외
 2. 농축산가공식품 : 곡물가공, 빵·떡류, 육류가공, 유지류
 3. 경제활동인구 302.7천명(취업자 302.7천명 실업자 6.6천명), 비경제활동인구 237.2천명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전주시통계연보,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2) 외식업체 현황

- 외식업체는 구도심에서 신흥 주거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전주 시민의 외식 소비 주요 소비처로 기능하고 있음
- 외식업체 비중이 높은 지역은 우아2동, 덕진동, 중화산2동, 금암1동 금암2동, 효자4동, 삼천1동 삼천2동, 풍남동 등

그림 12. 전주시 외식업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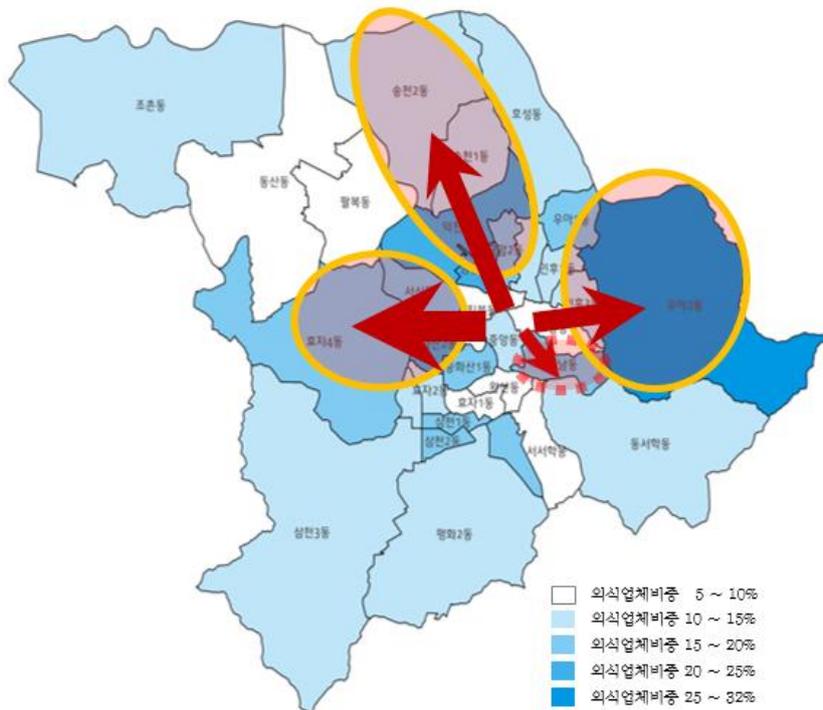


표 6. 학교급식 대상 현황

단위 :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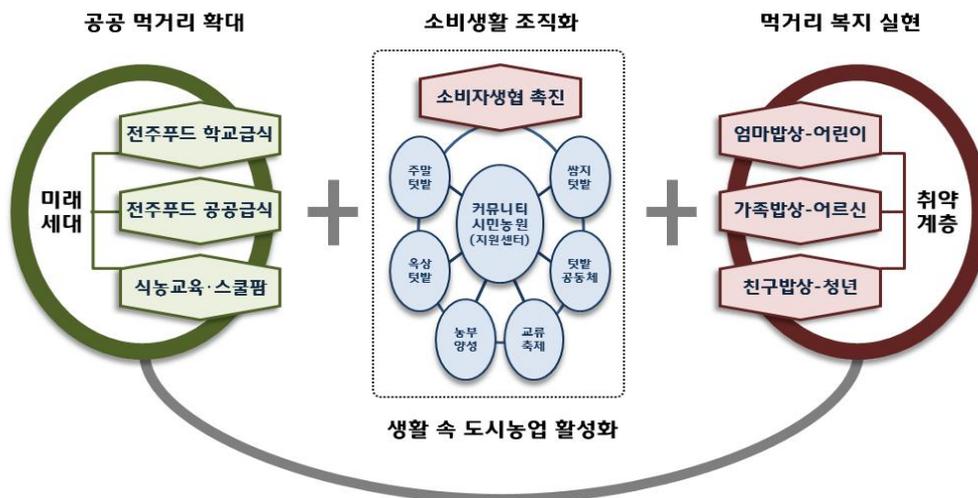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소	628	115	68	39	30
인원	19,676	10,271	38,898	26,069	28,021

자료 :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업무자료.

3) 전주푸드 소비체계 구축 중점방향 (City & Consumers)

-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전주푸드를 먹을 수 있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핵심방향
- 시민 모두가 작물재배·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생활농업(도시농업)의 전면화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활동 촉진
-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 먹거리의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공공급식, 식농교육의 전면적 확대로 전주푸드의 사회적 가치 실현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전주푸드 프로그램의 마련으로 전주푸드의 사회적 가치 실현

그림 13. 전주푸드 소비체계 구축전략



4) 전주푸드 순환체계 구축 중점방향 (Recycle & Food waste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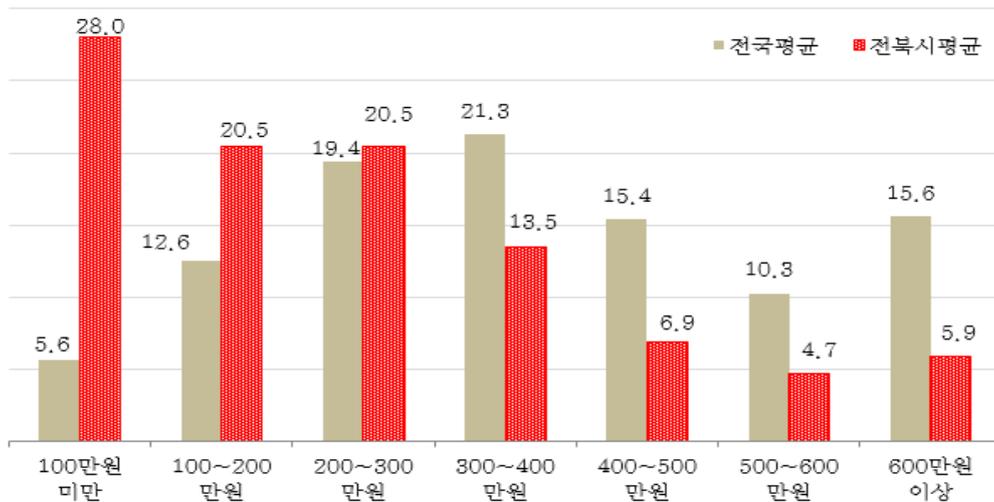
- 환경 배려와 건강사회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음식물 폐기물 관리·순환이 중요
- 음식물 폐기물을 줄여가는 생활 속 실천 활동을 통해 환경을 배려하는 전주푸드 생활화 실천기반 마련에 중점
- 먹거리 유통-소비 단계별 최소화 전략과 전주푸드만의 음식 폐기물 재활용 수거 체계를 정교화
- 음식 폐기물을 활용한 전주푸드자원화센터를 통해 물질순환 시범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도시농업(생활농업) 활동과 연계

- 취약계층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비중이 가장 높고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이 그 뒤를 이음
- 장애인 70.2%,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 23.7%, 재가노인복지시설 2.9%, 노인의료복지 시설 2.2% 등임
- 특징적인 것은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의 증가율이 55.2%로 매우 높다는데 있음

2) 소득계층 분포

- 이러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소득구간별 가계분포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계비중이 전국평균에 비해 5배 이상 높음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계동향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북 시지역의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계비중이 28.0%, 100~200만원 20.5%로 전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그림 15. 소득구간별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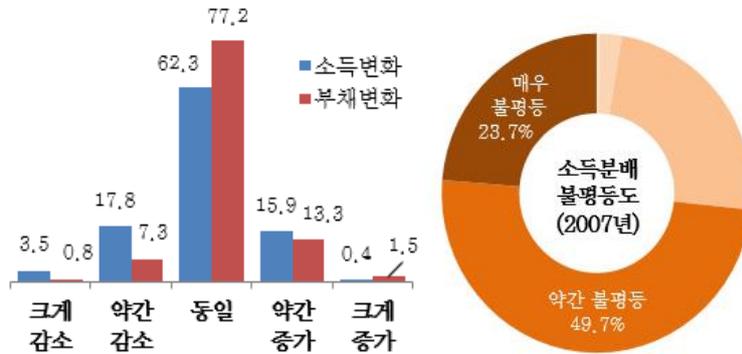
주) 광역단위로 통계가 발표되는 관계로 전북 시지역 평균과 비교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

- 사회 계층별 사회적 불평등은 식료품비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문제의 시정은 먹거리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 저소득층(월소득 1백만원 미만)의 가계소비 지출 항목 중 큰 비중 항목은 식료품비 50.9%, 연료비 29.4%, 보건·의료비 15.5% 순
- 반면 월 소득 6백만원 이상의 가계소비 지출 항목 중 큰 비중은 외식비, 의류비, 문화·여가비, 교통·통신비 등

3) 사회 불평등

- 전주시민이 체감하는 소득분배 불평등은 매우 불평등 23.7%, 약간 불평등 49.7%로 매우 높음
- 가계부채 감소 응답(8.1%)보다 가계소득 감소 응답(21.3%)이 3배 가까이 높아 소득은 정체되고 있지만 가계부채는 증가 추세임

그림 16. 전주시민 가계소득 및 가계부채 변화 정도(2013년)



자료 : 전주시 통계연보, 각 년도.

5. 대응방향

1) 먹거리를 매개로 한 연계

- 도시와 농업이 공존하는 전주시 여건에서 먹거리(Food)를 매개로 한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
- 전주시는 도시와 농촌, 산업과 농업, 소비자와 생산자가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로 기능을 하고 있음
- 도시와 농촌의 공생, 산업과 농업의 결합, 소비자와 생산자의 연대가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짐
- 도시문제와 농촌문제, 도시적 수요와 농촌적 요청이 만나는 영역이 바로 먹거리 영역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시정해 나가야 함

2) 촘촘한 먹거리 체계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촘촘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과 정책이 필요함

- 전주시에서의 지역생산(1천억원)과 지역유통(2천억원), 지역소비(1조2천억원)의 미스매치 해소가 중요
- 전주시민의 먹거리 소비규모에 걸맞는 지역생산의 확대와 지역 내 다양한 유통체계 구축이 관건
- 1천억 규모에 그치고 있는 지역생산 농축산물은 소비규모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전주시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은 전주 농산물과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지유통과 소비지유통의 지역화가 중요한 과제임
- 연간 1조 2천억원의 직접적 농축산물 소비규모에 걸맞는 먹거리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대책이 필요함
-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먹거리와 먹거리 복지의 확대가 시급히 요청됨

V. 전주푸드플랜2025 추진전략 4단계

1. 추진단계

1) 1단계 : 추진기반 동력 확보

- 관련조례 제정, 실행계획 수립,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 기획생산조직화, 생산기반·시설 계획, 전주푸드 직매장 순차 개설

2) 2단계 : 기획생산, 판매거점 구축

- 기획생산 체계구축, 농민가공 확대, 거점농민가공센터 구축
- 전주푸드 직매장·레스토랑 등 수요처 확대, 전주농업 생산력 복원

3) 3단계 : 공공 먹거리, 먹거리 복지 증진

- 공공(학교)급식 등 공공먹거리 공급 확대, 지역유통 재편
- 공공급식 확대 위한 시설 및 공급체계 구축, 식·농교육을 통한 소비 조직화

4) 4단계 : 전주푸드 생산-공급체계 안정화

- 전주푸드 기획생산, 관계시장 공급체계, 공공먹거리 안전성 담보
- 전주푸드 지역내외 공급 확산, 사회적 인식, 푸드거버넌스 정착

2. 과제별 추진계획

분야	전략 (Strategy)	실행과제 (Action Item)	비고
1 전주푸드 생산체계	①시장대응 전주농업 강화	• 환경친화형 농업체계 구축	
		• 품목별 시장 대응력 강화	
		• 지역농업 역량 강화	
	②로컬푸드 생산체계 구축	•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 로컬푸드 다품목 생산기반 구축	
		• 로컬푸드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③농민가공 기반구축	• 전주푸드 농민가공센터 구축		
	• 농민가공 기업 인큐베이팅 육성		
	• 지역농식품 가공 연계		
2 전주푸드 유통체계	④관계시장 사업거점 구축	• 전주푸드 직매장 설치 운영	
		• 슬로푸드 레스토랑 운영	
		• 전주푸드 마루쉐 운영	
	⑤기존유통 활성화	• 전주농산물 통합마케팅 강화	
		• 농산물 도매시장 기능 지역화	
		• 전통시장 재생과 주체역량강화	
⑥골목상권 연계·강화	• 향토마트 지역농산물 취급 확대		
	• 음식점 전주푸드 공급		
	• 도시농업 활동거점 구축		
3 전주푸드 소비체계	⑦생활 속 도시농업	• 생활농업 실천공간 확대	
		• 도시재생 텃밭공동체 육성	
		• 도시농부 양성 아카데미	
		• 도시·농촌 공생 프로젝트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활동 촉진	
	⑧소비자생활 조직 활성화	• 전주푸드 소비조직 이니셔티브	
		•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화	
	⑨공공 먹거리 확대	• 전주푸드 공공급식 혁신	
		• 식농교육·스쿨팜 확대	
		• 엄마의 밥상 프로젝트	
⑩먹거리 복지 실현	• 가족의 밥상 프로젝트		
	• 친구의 밥상 프로젝트		
	• 유통단계 포장 최소화		
4 전주푸드 리사이클	⑪음식폐기물 최소화	• 생활속 음식물 최소화	
		• 음식물 퇴비화 프로젝트	
5 전주푸드 실행체계	⑫자원순환센터 운영	• 전주푸드자원화센터 운영	
		• 전주푸드 제도구축	
	⑬통합추진체계 구축	• 전주푸드 거버넌스 실행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⑭시민참여 및 기준 마련	• 전주푸드 시민페어		
	• 전주푸드 기준 및 인증제도		

3. 기대효과

1)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연중 공급

- 시민대중, 공공(학교)급식, 음식점 등 전주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체계 구축
- 지역에서 도시와 농업,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공생 관계 정립

2) 지속가능 전주농업·농촌·농민의 새로운 발전모델 정립

- 3천여 중소농가·농민의 새로운 소득향상 기회로 경영안정 도모
- 소비자 수요 부응 안심·건강 농산물 생산의 지역농업 구조 재편

3) 도시-농촌의 공생발전 지역소비 구조 창출

- 연간 1천억원 규모의 새로운 관계시장 창출 지역사회활성화 기여
- 가게, 공공(학교)급식, 먹거리복지 포괄 종합체계 구축

4) 먹거리를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사회적경제 활성화

- 푸드를 중심에 둔 정책 추진 및 사회적 경제 방식의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활동 활성화
- 기획생산-관계시장 창출·재편으로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기회 확대

<참고자료 : 전주시 미래 농업·농촌발전계획 연구(2015 전북발전연구원)>